

## 2019년 12월 29일 “복음이 내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는가?”(벧전 3:18)

### <도입>

질문: 지금 여기에서 복음이 내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 [1] 성공한 인생 vs. 복음을 사는 인생

이 세상에서 성공이란 자기가 계획했던 것을 이룬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 만이 성공이라고 말하는 세속의 사상에 성도는 저항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생의 모든 일에는 양면이 있기 때문입니다. 항상 좋은 점과 나쁜 점은 함께 있습니다. 얻는 것이 있으면 잃는 것도 있습니다. 기대가 있으면 실망도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모르지 않지만 내 꿈이 생산성이 높고 빠르게 이루어지면 전부인 것 같을 때가 많습니다. 삶의 일면만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이 더 좋은 소식이 되려면 복음이 주는 가장 중요한 혜택, 아버지와의 관계가 잘 세워져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어둠이 닥치고 두려워질 때 우리에게는 품에 안고 나의 자리에서 안정되고 복된 힘을 주실 수 있는 아빠가 필요합니다.

**시 131:1-2** ‘주님 이제 내가 교만한 마음을 버렸습니다. 오만한 길에서 돌아섰습니다. 너무 큰 것을 가지려고 나서지 않으며, 분에 넘치는 놀라운 일을 이루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 마음은 고요하고 평온합니다. 젖은 아이가 어머니 품에 안겨 있듯이 내 영혼도 젖은 아이와 같습니다.’

복음은 따뜻하고 자비로운 아버지를 필요로 한다는 간절함 위에 더욱 좋은 소식이 될 수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가장 소중한 일을 본문을 통해 말씀해 줍니다. **3:18(후)** “... 그는 육으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셔서 여러분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려는 것입니다”

복음을 깨달은 사람은 나의 어떤 것도, 지금 나를 사랑하시는 이 사랑보다 더 사랑하시게 만들 수 없다는 사실을 압니다. 지금 내가 받고 있는 사랑만이 가장 위대한 능력을 갖습니다. 그 능력이란 나를 치유하고 부드럽게 만들고 긍정과 소망을 갖게 하는 능력. 지금이 지나가면 이 능력은 쉽게 오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 [2] 아버지와 나의 관계

이것이 내가 살아지는 길입니다. 주님은 온 힘을 다해 삶의 성공을 이루라고 말씀하지 않고, 이미 진정한 주님의 성공 위에 살아지는 길을 지금 아버지 안에서 발견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붙들고 사는 여정에서는 아버지가 얼마나 자비하신 지를 알아가는 데 관심이 있습니다. 더불어 그분의 사랑받는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감격스러운 발견도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우리의 머리구조를 뒤집어 놓아서 무엇을 하는 것이 내가 누구인지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우리의 삶을 보면 일을 중심으로 계획을 짜고, 다른 사람과도 협력하고 관계를 맺고(직장, 사회에서...), 심지어는 가정 안에서도 자기 할 일을 잘 하고 돈 잘 벌어드는 것을 가치 있게 여기고 있으니 나는 누구인가를 얼마나 잊어버리고 사는지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일이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교회 목양은 내가 주님 품에 안겨야 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 됨을 아는 것이 얼마나 회복되고 도전 되어야 하는지를 확신할 때마다, 사역의 비장한 속성을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가 무엇보다도 복음의 여정에서 예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님을 알아가고, 또 나를 알아가는 여정 속에서 복음의 꽃을 피워내기를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맺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인도받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했습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해줄 수 있는 그 분명한 것, 아버지를 알게 하고, 사권을 갖게 하며, 아버지의 자비에 맡기고, 아버지와 사랑의 동행을 걷는 삶이 얼마나 복된 약속된 삶인지를 누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나눔의 질문>** (아래의 질문 외에도 얼마든지 다른 질문과 함께 토의하실 수 있습니다.)

1. 복음을 믿고 복음이 내게 해줄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자유롭게 말씀하며 리스트를 만들어 보세요.
2. 아버지와의 관계가 왜 모든 일 가운데 참으로 중요한 기초가 된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